

청소년축제

가을, 축제로 열다

사회인 야구



지난 3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특설무대에서 광주일보 주최로 열린 '2013 제2회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에서 참가 학생들이 조선대 밴드 동아리 '나리안'의 공연에 환호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화보 13면·관련기사 18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주최 제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에 출전한 인왕 토너먼트 신야구단과 애프터나인 선수들이 1일 무등중학교에서 힘찬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총 48개 팀이 참가했다. ▶관련기사 14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분양도 안된 산단옆 석산에 인허가 추진

이슈 현장 순천시의 이상한 농공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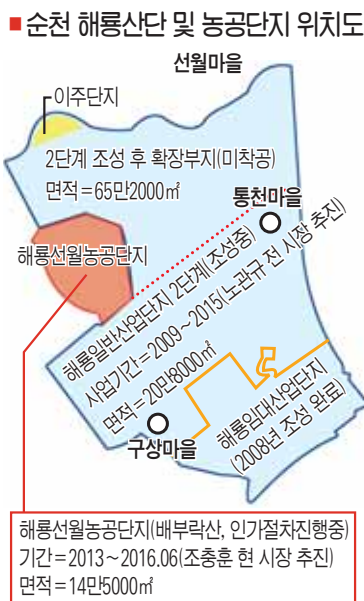
전남도·광양만청 “이해할 수 없는 조치” 순천시 “투자협약과 인허가 절차 별개”

순천시가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 바로 옆에 새로운 사업자의 농공단지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분양도 안 된 산업단지 옆에 성격이 유사한 농공단지 신규 조성이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다 산단 사업자는 물론 주민, 전남도,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등이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농공단지 부지는 골재 채취가 가능한 석산으로, 지난해 조충훈 현 시장 취임 이후에 설립된 농공단지 추진업체는 중국 업체의 투자유치를 받았으며 순천시와 투자협약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석산 발파 작업으로 인해 산업단지

분양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산단 사업자는 기존 협약과 달리 부지 인근에 농공단지를 인허가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동면에 조성될 예정인 해동일반산업단지 2단계(60만 8000㎡) 부지 옆 배부락산을 올해부터 2016년 6월까지 해동선월농공단지(14만5000㎡)로 조성하는 개발허가신청이 접수돼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17일 지역 건설·토목업자로 구성된 7업체, 중국 업체 등 2곳과 이 농공단지에 200억원을 투자해 고압용기 제조

및 생산공장을 건립하는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7업체 측은 배부락산 부지 내 사유지 절반 이상을 매입한 뒤 지난 7월10일 시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지난달 6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친 합동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모두 무산됐으며, 사전협의에 나선 전남도나 광양만청 등에서도 시의 농공단지 조성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 부지는 애초 산단에 포함됐다가 '사업성'을 이유로 제외된 곳이었어서 지난해 갑자기 사업이 추진된 배

경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을 맡은 7업체는 지역 건설토목업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26일 설립한 회사로, 일부는 지난해 순천시 장 보궐선거 당시 특정후보의 선거캠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업체가 석산을 개발해 토사 및 골재를 판 뒤 산단 조성후 분양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다른 후보 캠프에 몇 번 들린 적은 있으나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으며” “조성중인 산단의 분양가가 너



무 높은데다 중국 사업자 측이 투자를 서두르고 있어 농공단지 개발에 나선 것으로, 모두 근거 없는 남설”이라고 설명했다.
순천시는 투자하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투자협약서를 체결하는 것과 인허가 절차는 별개 사항”이라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할 규정이 없으며 중국 업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정기국회 개회는 하지만...

국정원 대치·이석기 사태 겹쳐 초반 파행 불가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2일 막을 올리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4면>
하지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와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진로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2일 국회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할 계획이지만 정치권은 정기국회가 문만 열어놓은 채 초반부터 파행 운영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야가 1일 현재 대정부 질문을 언제 열지, 국정감사를 언제 진행할지, 이석기 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는 언제 열 것인지 등에 대한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혼돈 정국 속에 돌파구를 못 찾을 경우 적어도 추석 전까지 파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계속 민주당의 장외투쟁 포기를 촉구하고 있지

만, 민주당은 청와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른바 '원내 투쟁'에 무게를 실자는 의견도 있지만, "성과 없는 회군은 안 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훨씬 큰 상황이다.
경색 정국을 풀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로 인식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도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간 국외 순방을 떠날 예정이었어서 당분간 힘든 상황이다.
또 새누리당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찬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는 체포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하자는데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르면 오는 3~5일 중 표결처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주유비 지원 100만원
문의 : 062-226-0001

Mercedes-Benz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1등 공기업!

시민과 함께한

20년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공기업 창조
광주광역시도시공사
Gwangju Metropolitan City Corporation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502-827
TEL(062)600-6600~7 http://www.gmcc.co.kr